

『공간의 역사 - 단테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

마거릿 버트하임 著, 박근서 譯, 생각의 나무, 2002

사이버스페이스, 그 계보와 재해석적 의미

박 근 서¹⁾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은 <논리-철학 논고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의 끄트머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하여야 한다”고 했다. 표현하기 어려운 혹은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해 입을 대는 건, 어쩌면 그것을 오해하는 지름길일지 모른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에 언어를 입히고 이름을 씌우는 일은, 그 ‘말로 표현될 수 없음’을 무시하는 처사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말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의 의미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가? 공(Gong)이 말하는 라디오 그놈 인비저블(Radio Gnome Invisible)²⁾의 텔레파시라면 모를까, 인간들에게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노자는 “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말을 하자면 어쩔 수 없으니 그것을 “도라 부르자”고 하지 않았던가. 비트겐슈타인 역시 후일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s>에서 “정확하지 않은 그림은 그림이 아닌가?”라고 자문하며, “정확하지 않은 그림도 그림”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1) 박근서는 현재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의 언론영상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영상,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PC게임에 관한 문화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텔레비전 오락의 문화정치학』(2003), 『파일럿 판타지:사이버 신체의 유희와 카르마』(2004)가 있으며 연구논문으로는 ‘컴퓨터 게임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3)가 있다. gspark1@cu.ac.kr

2) 영국의 록그룹 공(Gong)이 구축한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외계 종족. 이들은 “날으는 찻주전자(Flying Teapot)”를 타고 다니며, 뽀족하게 생긴 머리끝에 달려있는 프로펠러로 전파(radio)를 발사한다. 이 전파는 인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텔레파시와 같다.

문제는 어쩌면 ‘말’ 인지 모른다. 달보다 손가락에 매달려 있는 혜능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 그 자체보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에 매달려 그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분명히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이라는 말은 은유이며,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표현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어쩌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이야 말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이해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달리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와 다른 공간을 헛갈리지 않는 것, 그리하여 이 새로운 세계를 바로보고 그 본연을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거릿 버트하임의 <공간의 역사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는 공간개념의 간략한 계보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 중세에서 시작해 근대를 거쳐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공간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가운데 ‘사이버스페이스’를 위치시킴으로써 말이다.

버트하임은 단테의 신곡이 그려내고 있는 세계상 혹은 공간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대의 원근법적 공간 개념과 현대 물리학의 공간 개념을 거쳐 사이버스페이스에 진입한다. 이러한 역사적 탐구는 결국 종교적 세계관을 통해 구축된 정신의 공간으로의 회귀로 귀결되며, 무엇보다 영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발견이라는 식의 결론으로 연결된다. 버트하임에게 있어 ‘공간’은 근대 물리학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상식적 ‘공간’과 다른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리적 공간의 개념은 여러 공간 개념들 가운데 하나일 뿐,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스페이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며 그렇다고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공간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는 오히려 ‘스페이스’의 한 은유로서—사이버스페이스가 스페이스라는 은유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그 이상의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르면 역사는 한 바퀴를 돈 셈이 된다. 즉 이원론, (디지털 시대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든) ‘영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중략)… 단지 기독교적 유토피아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인간의 문화가 구축해 온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공간을 염두에 두고서 …(중략)… 사이버스페이스는 그것에 관해서 자주 거론되는 순진한 미사여구 이상의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말의 마지막 두 글자인 ‘공간’이라는 단어의 끊임없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은유를 제공한다.(57)

버트하임에 의하면 단테의 <신곡>은 기독교적 영혼 공간에 관한 최고의 지도이다. <신곡>에서 단테는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을 차례로 여행한다. 지옥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나선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점점 차고 어두워지며, 그 끝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는 악마가 자리 잡고 있다. 단

테가 묘사한 이들 세계 특히, 지옥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실제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러한 탁월하고 실감 있는 묘사는 연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옥과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연옥의 공간은 천국을 향해 있는 원추 모양의 산으로 이야기된다. 사람들은 이곳을 오르며 죄를 씻고, 그 영혼은 점점 가벼워져 결국 천국을 향해 들려 올라간다. 단테에게 중력은 죄의 무게이다. 하지만 천국을 묘사함에 있어 단테는 지옥과 연옥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되던 <신곡>의 지옥과 연옥과 달리 '천국'은 막연하며 모호하게 그저 빛의 덩어리로 이야기될 뿐이다. 신의 영역인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초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은 단지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한 기이한 공상을 담고 있는 허구가 아니다. 사실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그것은 중세의 믿음이었으며 중세인의 공간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버트하임은 단테가 정말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의 존재를 믿었을까 혹은 그 세계가 자신의 묘사대로 존재하리라 확신했을까 믿는 것은 순전히 근대적 관점의 질문일 뿐이라 말한다. 보르헤스의 말대로 단테가 그의 상상을 믿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결국 "중세의 사고구조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현대의 순전히 물리주의적인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98)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공간에 대하여 물리적으로만 사고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중세의 그러한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르 고프의 지적대로 중세인들에게 단테의 사후세계 여행은 그것이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실체의 존재방식과는 다른 양식으로) 실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테가 구축한 중세적 공간관, 즉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공간 이미지는 버트하임에게 있어 사이버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르네상스 시대 지오토로부터 구축된, 원근법적 공간 이미지가 뉴턴의 거시 물리학적 세계의 공간 개념과 연결되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통해 설명되기 시작했을 때, 단테의 중세적 공간 이미지는 하나의 허구로 전락해 버린다. 아시시의 바실리카 교회당 벽화가 보여주듯 중세의 공간은 들쭉날쭉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의 천장화에서와 같이 중세의 공간 이미지는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원칙에 따라 사물들을 정교하게 배열한다. 중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들의 공간을 조직하였지만, 근대는 그저 '물리적 존재들이 배열된 텅 빈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더 이상 공간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근대의 공간은 물질의 거처이며 물질의 존재 양식이었다.

하지만 버트하임은 이러한 근대적 공간 개념은 공간의 다차원성에 대한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들에 의해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한다. 리만이 비유클리드적 공간의 전망을 제시하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증명해 낸 이후, 우리의 세계는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지의 차원들과 연결된다. 중력이 뉴턴의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의 구겨짐 혹은 만곡에 의한 굴러 떨어짐의 결과라는 생각은 한편, 전자기력에 대한 칼루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설명하

기 위해 4차원을 가정했듯이, 칼루자는 전자기력을 설명하기 위해 5차원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현대 물리학은 11차원까지 공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보이는 것만의 공간 혹은 거시적 공간의 개념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 아울러 이들 모든 차원을 통일할 수 있는 초공간의 개념이 제시되었을 때, 흥미롭게도 일부 물리학자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자체를 영적인 면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294)

나는 물리학도로서 초공간이론에 깊게 매료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초공간이론이 특히 미학적 실천으로써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내가 정말로 문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초공간이론이 실재의 총체성을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내가 도전하려는 것은 TOE(Theory of Everything) 물리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이다.(295)

이렇게 단테에서 출발하여 초공간이론을 거쳐 버트하임이 도착한 곳은 물론 ‘사이버스페이스’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하지만 초공간이론에 순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학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법칙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는다. 특히 이 새로운 공간은 물리학자들의 초공간 복합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공간의 개념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311) 이 세계는 신에 의해 구축된 중세의 공간도 물리적 실재들이 배열된 근대적 공간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나은 은유는 근대적 공간보다는 단테의 중세적 공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구성 원리를 제시하고, 오직 활자를 통해서만 그 이미지가 제시되는 이 공간의 가상성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발견한 패턴들을 좀 더 열거하면, 세 개의 사후세계들의 공간적 배열, 연옥에서 펼쳐지는 꿈 이야기들의 균형적인 배열, 각 시편의 행의 수, 그리고 긴 시편과 짧은 시편의 분배 등에서 일관된 구조가 밝혀졌다. <신곡>의 숭고한 시학의 이면에 치밀하게 짜여진 패턴, 숨겨진 코드들의 놀라운 하부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학자들은 알아냈던 것이다. 단테를 최고의 기술을 지닌 코드 마법사로 인정하는 뜻에서 루슨트(Lucent) 테크놀로지의 연구원들은 최근에 개발한 네트워크 운영 체계에 ‘지옥Inferno’이라는 이름을 붙였다.(338)

버트하임은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초월성 혹은 신비적 성격을 미학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의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비약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를테면 “현재의 실제 생활 자체는 그저 또 다른 윈도우”일 뿐이라거나 혹은 “육체를 갖지 않은 자아들도 여러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

으므로 육체를 가진 자아에게만 특별히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터클의 주장을 비판한다. 왜냐 하면 ‘육체를 가진 자아’의 경험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경험과 다르며 결국에는 실제로 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버트하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역할 놀이가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마치 모양이 한없이 바뀔 수 있는 점토처럼 생각하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다른 수많은 분신들을 통해 수시로 역할놀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아가 파편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이다.(343)

아무튼 터클의 호들갑이 말해주듯,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욕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꿈은 단순한 도피주의나 그노시즘을 위한 영생과 전지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것은 속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공간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그러하듯, 사이버스페이스는 “거리의 장벽을 초월하고 성, 인종, 피부색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상적 공동체가 확립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유토피아”라는 버트하임의 이상이다(396). 에스터 다이슨(Esther Dyson)이 지적하듯 “우리의 공통된 과제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물론 가능한 일이다.(397)

물론 사이버스페이스에 장밋빛 꿈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내적 공간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는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추악한 면들이 너무나도 쉽게 분출될 수 있는 허약함을 지닌다. 온갖 종류의 범죄와 폭력이 범람하는 에덴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고모라’라고 해야 옳을지 모를 이 공간의 어떠한 측면들은 분명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버트하임은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추악한 측면을 “마치 지옥의 새로운 옥(獄) 속을 내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말한다(418).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이버스페이스를 ‘유토피아’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버트하임의 수사는 중의적이다. ‘유토피아’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그것의 긍정적 가능성에 대한 찬사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 그대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상 속의 세계라는 비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를 진정한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의 본성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다. 특히 물리적 실재와는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어떠한 물리적 법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이 공간에 있어 인간의 정신 혹은 인간의 영혼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에 따라 자신이 물질 공간과 영혼 공간 양쪽 모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오직 물질 공간에만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비서구 문화권의 사람들처럼 물질과 영혼의 두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트하임은 공간에 대한 이해와 자아에 대한 이해가 서로를 각각 반영한다는 것만은 보편적인 진실이라 말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간 개념의 산물이라는 것이다(431). 결국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그 속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버트하임의 <공간의 역사>는 단테의 <신곡>에서부터 멀고 긴 우회로를 따라 사이버스페이스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간'이라는 해묵은 개념으로 포착해낸다. 물론 이 새로운 공간을 위해 그리고 '공간'이라는 말의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는 이 표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현대 기술 문명의 첨단적 현상을 다루면서,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와 이미지는 중세적이며 종교적이라는 점이다. 근대는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물질주의자로 만들었다. 정신과 의식을 뇌수의 기능이라고 정의한 노이라트의 부르주아 유물론이나, 사회적 삶의 제1 요인을 경제 혹은 물질적 삶으로 규정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이나, 영혼의 거주 공간을 박탈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버트하임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우리 시대 영혼을 위한 새로운 거처로써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믿는다. 어쩌면 신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을 이러한 버트하임의 생각은 한편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그것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미래는 결국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는 다소 진부하고 교훈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공간의 역사>는 나름대로 사이버스페이스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호들갑스럽기가 티끌보다 덜하지 않지만, 이러한 은유—버트하임은 그것을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은유이다—와 표현들이 지니는 미덕은 정당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무어의 벽'에서 사용된 은유로써의 '특이점'을 사상의 지평면 너머에 있는 물리학적 '특이점'과 헛갈리듯이, <신곡>의 공간과 사이버스페이스가 지니는 유비성을 실제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공간의 역사>가 지니는 신비주의적 뉘앙스는 한편으로 효율적인 수사이며 나름대로 자기발견적인(heuristic) 깨달음의 계기를 형성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오해와 오독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